

女高生の 服飾行動에 대한 男女高等學生의 反應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Reaction on Girl Student's Clothing Behaviour

仁川富光女子高等學校

教師 丁 海 子

仁荷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教授 朴 贊 富

Pukwang Girl's High School

Teacher; **Hai Ja Jo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In Ha University

Prof; **Chan Boo Park**

< 목 차 >

- | | |
|-------------|---------------|
| I. 序 論 | IV. 研究方法 및 節次 |
| II. 理論的 背景 | V. 結果 및 論議 |
| III. 問題의 敘述 | VI. 結 論 |
| | 引用文獻 |

< Abstract >

Teen-agers are much concerned for their appearances. Their clothes reflect their living conditions and serve as a means to represent themselves as well. They also show great concern for the clothes of students of an age. So to guide their clothing behaviours in schoo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living guidance of students. From this point,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g closely the differences of recations as to the girl students' clothing behaviours between boy students and girl students of high school, and th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 condition and reaction upon the clothing behaviours of girl students.

To check the physical environment condition of the family, the family circumstances test, made and standardized by Jung Won Sik, was used. To check the clothing behaviours of girl students, four items-modesty, fashion and esthetics were made and each item had five questions, which comprised fifteen questons all told.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students in eight high schools located in Incheon, totaling 930 boys and gir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students' reaction upon girl students' clothing behaviours according to their physical circumstances level, sex, grade years and the degree of concern for other sex.

(A)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physical circumstances level and their reaction upon the girl students' clothing behaviours is high in all the three items. The higher the students' circumstances level is, the lower their reaction upon modesty is, and the higher their reaction upon fashion. In case of esthetics, only girl students show great concern for it.

(B) As to the reaction upon the girls students' clothing behaviours by sex, girls show higher concern for modesty, fashion and esthetics than boys.

(C) As to the reaction upon the girl students' clothing behaviours by the grade years, the first year students as a whole show higher concern for modesty than the second grade year students.

(D) As to the reaction upon the girl students' clothing behaviours by the degree of concern for other sex, the more concern both the boy and the girl students have for other sex, the higher their reactions are upon fashion and esthetics, but the lower upon modesty.

2. From the point of reactions upon the girl students' clothing behaviours,

(A) as to modesty, free variables can explain by 7.8 percent the degree of concern for other sex, physical circumstances level, sex, grade year in that order.

(B) as to fashion, free variables can explain by 5.4 percent the concern for other sex, physical circumstances level, and sex in that order.

(C) as to esthetics, free variables can explain by 4.8 percent the concern for other sex, physical circumstances level, and sex in that order.

From the above analysis, the following are included:

The concern for other sex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girl students clothing behaviours, the physical circumstances level the next, sex the third and the grade year the last.

I. 緒 論

人間の社會活動에 있어서 衣服의 중요성은 그동안 社會心理學者들에 의해 強調되어 왔다. Horn¹⁾은 “衣服은 社會를 特徵짓는 習慣, 思考, 技術, 條件의 가장 시각적 表現의 하나”라고 하면서 衣服을 착용한 사람의 人性和 라이프스타일을 비교적 正確하게 나타내주는 指標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衣服은 人間の 외모뿐만 아니라 인간의 行態나 心理에도 큰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人間の 生活相을 잘 反映하고 있다. 특히 자기의 身體나 容貌에 많은 關心을 가

지고 있는 靑少年期에 있어 衣服은 그들의 社會參與에 큰 役割을 하며 靑少年期の 社會適應能力은 成年期の 社會適應能力 成就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靑少年의 社會適應問題는 다른 年齡層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學生들의 服裝은 그들이 처해있는 生活相을 그대로 反映하기로 하고 자신을 表現하는 手段으로 使用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 특히 같은 또래의 衣服에도 지대한 關心을 갖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教育現場에서 學生들의 衣生活에 많은 問題點이 대두되어 衣生活 指導上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男女高等學生들의 反應

에 관한 研究가 學生들의 衣生活 指導를 위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本 研究의 目的을 設定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첫째,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男女高等學生들의 反應이 어떻게 다른가를 說明한다.

둘째, 學生들의 環境要因이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反應과 어떤 相關關係를 갖고 있는지 說明한다.

II. 理論의 背景

A. 靑少年期

靑少年이란 兒童期の 終末과 成年期の 시작 中間에 있는 모든 사람의 生涯를 말하며²⁾ 정신과 生活養式의 再體系化가 이루어지는 時期이다³⁾. 年齡의으로 Hurlock⁴⁾은 靑年期를 13, 14才부터 17才까지를 靑少前期, 18才부터 20才까지를 靑少後期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高等學生集團은 靑年後期에 해당한다. 一般의으로 靑少年期는 급격한 身體的, 生理的 變化로 말미암아 情緒의 不安定을 초래하며 身體에 대한 意識이 強할 뿐 아니라 自己 內面으로 向하는 계기가 된다⁵⁾. 또한 靑年期는 外形의인 發達과 함께 精神的, 社會的, 感情의 發達을 하게 되고, 家族이나 다른 어른들로부터 離脫하며 또래 集團의 수용과 認定을 받기 위해 勞力하는 時期로써 특히 衣服이나 外貌로 社會的인 認定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衣服에 대한 關心이 크다⁶⁾. Hurlock⁷⁾은 그의 研究에서 外貌는 靑年期동안의 自我概念에 影響을 주며 동료그룹에서 그의 位置를 위하여 外貌를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衣服을 그 手段으로 使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靑少年들에게 있어 衣服은 그들의 社會的 適應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며 自身들의 感情과 情緒 및 個性을 表現하는 가장 重要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B. 服飾行動

本 研究에서는 學生들이 보는 女高生들의 衣服着用과 態度를 服飾行動이라 하고 女高生들의 服飾行動變因으로 貞淑性, 流行性, 審美性에 대하여 調査하였다. 貞淑性을 靑少年과 關聯하여 장기숙⁸⁾, 홍찬희⁹⁾, 윤창숙¹⁰⁾, 최혜선¹¹⁾의 研究結果 우리나라 女高生은

貞淑性을 가장 重要視하고 있으며 年齡의으로는 김영인¹²⁾, 권혜옥¹³⁾의 研究結果 女中生이 女高生보다 貞淑性이 높고 최혜선¹⁴⁾의 女高生을 대상으로 한 研究에서는 저학년일 때 높게 나타나서 사춘기에서는 年齡이 어릴수록 貞淑性을 重要視하고 있다. 流行에 대하여 Kefgen과 Specht¹⁵⁾는 “特定한 時代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認定받는 스타일”이라 했고, 장문호¹⁶⁾는 “一定한 社會속에서 어느 一定한 時間內 그 社會의 相當히 범위가 넓은 사람들이 趣味嗜好, 生活態度, 思考判斷등에 있어서 모방을 모체로 해서 취하는 流動的인 同調行動의 樣式”이라고 하면서 “流行의 社會的 意義란 社會를 固定化하려는 習慣을 지나면서 社會를 流動化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했다. 한편 靑少年과 關聯된 先行研究를 考察해 보면 김영인¹⁷⁾의 研究에서 女高生들의 流行性은 經濟的水準과 正的인 關係로 나타났고 김병미¹⁸⁾의 研究에서는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流行에 關心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전경숙¹⁹⁾은 流行의 心理에 대하여 첫째, 社會的으로 認定받고 싶어하는 欲望과 둘째, 周圍의 모든 것에 順應하려는 欲求라고 정의 했다. 衣服의 審美性에 대하여 Lapitsky²⁰⁾는 “衣服의 審美性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感嘆하며 아름다움에 보다 神經쓰는 것”이라고했고 McJimsey²¹⁾는 “美의 基準은 時代와 場所에 따라 다르나 衣服着用的 基本的 動機인 裝飾의 欲求是 時代에 따라 거의 變함이 없다”고 함으로써 人間의 裝飾美 追求에 대한 不變性을 말하였다. 또한 Starr²²⁾는 衣服을 입지 않은 원시부족은 있어도 裝飾을 하지 않은 부족은 없다고 하여 審美性이 衣服着用的 一次的 動機임을 주장했다. 審美性을 靑少年과 關聯하여 Hurlock²³⁾은 “靑少年期에는 非現實의이고 奢侈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外貌에 매력을 더해 준다면 積極的으로 받아 들인다”라고 하여 靑少年期에는 審美性을 重要視한다고 하였다. 장기숙²⁴⁾의 研究에서는 “審美性은 社會的 認定性和 正的 相關關係를 갖고 있다”고 했고 최혜선²⁵⁾은 “靑少年들은 自身에게 外貌를 돋보이게 하는 것과 缺點을 감추는 데 關心을 갖게 되어 衣服을 自身의 外貌를 改善시켜 주는 手段으로 使用한다”고 하므로써 靑少年들이 특히 審美性에 關心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III. 問題의 敘述

A. 研究問題 I ;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을 物理的 環境水準, 性別, 學年別, 異性에 대한 關心度別로 그 差異를 比較分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架設을 設定하였다.

1) 假說 1 ;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과 物理的 環境水準과는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2) 假說 2 ;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性別에 따라야 有意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3) 假說 3 ;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學년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4) 假說 4 ;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異성에 대한 關心도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B. 研究問題 II ;

<研究問題 I>의 結果를 토대로 獨立變因인 學生들의 物理的 環境水準, 性別, 學年, 異성에 대한 關心度가 종속변인인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미치는 影響을 細明한다.

C. 用語의 定義

1. 服飾行動

本 研究에서 使用된 服飾行動은 高等學生들이 보는 女高生들의 衣服着用과 態度를 말하며, 服飾行動 下位變因은 다음과 같다.

a. 貞淑性

女高生으로서 身體를 과도히 露出시키거나 꼭 끼이는 옷을 입은 것을 보았을 때 貞淑치 못하다고 느끼는 것을 意味한다.

b. 流行性

流行을 따르는 女高生の 服飾行動에 대하여 肯定的인 態度

c. 審美性

衣服을 통하여 아름다운 外貌를 가꾸려고 하는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하여 肯定的인 態度

2. 物理的 環境水準

學生들의 家政環境中에서 教育的 視點에서 본 文化 經濟的, 物理的인 條件을 갖춘 정도

IV. 研究方法 및 節次

A. 測定道具

1. 物理的 環境檢査

정원식²⁶⁾에 의해 製作標準화된 家政環境 診斷檢査로 총 8個 問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의 번호를 합친것이 원점수가 된다. 本 檢査에서 제시하는 物理的 條件은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반드시 경제적 지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지위보다도 교육적 관점에서 본 물리적 조건으로 점수가 많을수록 물리적 환경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⁷⁾

2. 服飾行動 檢査

服飾行動 變因은 Creekmore²⁸⁾, 김광경²⁹⁾, 전경숙 등³⁰⁾의 先行研究에서 使用된 問題들을 참고로 하여 本 研究자가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하여 男女學生들이 反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수정작성하여 豫備調查를 實施하고 恒常性檢査 및 信賴度檢査結果 恒常性係數의 범위 .47~.91, 信賴度係數의 범위 .49~.93, 內的一致도의 범위 .48~.83으로 비교적 相關이 높은 것으로 만족하다³¹⁾고 판단되는 問項을 각변인별 5個항씩 총 15個항을 선정하여 使用했다. 測定方法은 리커-트타입의 5段階 評定法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服飾行動에 대한 性向이 높은 것을 意味한다.

B. 調査對象 및 資料收集

1. 調査對象

調査對象은 仁川地域이 高等學校 平準化地域으로서 學生構成面에서 學校에 따른 差異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公立高等學校男女 각 2個校씩과 私立學校男女 각 2個校씩 총 8個校를 선정하여 1,2학년 930명을 對象으로 하였다.

2. 資料收集

本 調査 實施期間은 1987年 2月 중순 豫備調查를 거쳐 1987年 3月 하순부터 4月 초순까지 實施하였고 設問紙는 930부가 배부되어 그 중 912부가 회수되었고 불안전한 것을 제외하고 배부 총수의 91%에 해당

되는 846부가 統計處理에 使用되었다.

標集對象의 性別 學校別, 學年別 分布는 <表 1>과 같다.

C. 資料分析

研究資料에 대한 統計的 處理는 仁荷大學校 電子計算所의 spss-X에 의하였다.

1. 研究問題 I :

<假說 1>은 물리적 환경점수와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點數間에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算出하여 그 相關性을 檢證하였고 <假說 2>와 <假說 3>은 各 服飾行動 要因의 平均點數와 標準偏差를 男女別, 學年別로 算出하여 t-test로 檢證하였다. <假說4>는 各 服飾行動 變因別로 異性에 대한 關心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檢證하기 위하여 F-test 및 Duncan의 多重範圍檢證으로 分析하였다.

2. 研究問題 II :

研究問題 II를 糾明하기 위하여 回歸分析을 하였다.

V. 結果 및 論議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을 물리적 환경 수준별, 性別, 學年別, 學生들의 異性에 대한 關心度別로 그 差異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A. 研究問題 I

1) 假說 1 :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과 그들의 물리적 환경수준과는 相關關係가 있을 것이다.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點數와 물리적 환경점수와의 相關性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算出하여 分析한 결과는 <表 2>와 같다.

全體의 反應點數와는 모두 正的 相關關係가 있게 나타났다. 男學生의 경우 貞淑性은 물리적 환경수준과 $p < .05$ 수준에서 負的으로 流行性은 $p < .05$ 수준에서 正的으로 有意한 相關係數를 보였다.

女學生은 貞淑性에서 $p < .001$ 수준에서 負的으로 流行性和 審美性은 $p < .001$ 수준에서 各各 正的으로 有意한 相關關係를 보였다. 즉 물리적 환경수준이 낮은 學生들은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있어 貞淑性을 重要視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수준이 높은 學生들은 貞淑性은 별로 重要視하지 않는 반면 流行性和 審美性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結果로 볼 때 경제적, 教育적 環境수준이 높은 집단인 學生들은 女學生의 옷차림이 단정한 것보다는 현재 流行하는 것이거나 美的으로 아름다운 것에 더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金景호³²⁾의 研究에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의복선택시 美的인 면을 重要視하고 있다”고 한것을 뒷받침 하고 있고 金경희³³⁾의 研究에서 “父의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貞淑性은 重要視하지 않았다”고 한것과는 일치된 結果이다. 또한 이명희³⁴⁾가 그의 研究에서 外國선행연구를 分析한 “modesty를 重要視하는 것은 下流層이었고 中流層은 modesty에 대한 關心이 적었다”고 한것과도 일치되는 結果이다. 따라서 <가설 1>은 모두 肯定되었다.

2. 假說 2 :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性別에 따라 有意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男女學生들의 反應을 t-test로 分析한 結果는 <表 3>과 같다.

<表 3>에서 보는 바과 같이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표 1> 標準對象

성별 학교별 학년	남		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1	104	110	106	100
2	106	110	108	102
계	210	220	114	202
	430		416	

<표 2> 물리적 환경 점수와 복식행동 점수와의 상관 계수

복식행동	성 별		
	남 자	여 자	전 체
정 숙 성	-.13*	-.19***	-.13***
유 행 성	.12*	.16***	.14***
심 미 성	.07*	.15***	.11***

* $p < .05$, ** $p < .01$, *** $p < .001$

〈표 3〉 男女別 服飾行動의 點數 差異

평균, 別 성, 別	복식행동 표준편차		정숙성		유행성		심미성	
	M	S.D	M	S.D	M	S.D	M	S.D
남 자 N=430	18.71	3.54	14.67	3.13	19.47	2.81		
여 자 N=416	19.61	3.02	14.69	2.87	19.78	2.50		
t-value	-4.00***		-.12		-1.67*			

*p<.05, **p<.01, ***p<.001

대한 男女學生들의 反應에서 貞淑性은 $p<.001$ 의 높은 有意水準에서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높았으며 審美性은 $p<.05$ 水準에서 女學生이 높았다. 이 중에서 貞淑性에 대한 反應은 국내의 先行研究 임춘봉³⁵⁾, 최순희³⁶⁾, 이유순³⁷⁾의 研究에서 “女子는 男子보다 貞淑性을 重要視한다”고 한 結果와 일치되고 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미성이 높은 것은 본 연구의 設問에서 같은 또래의 學生들을 만났을 때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부위에 대한 應答중 女學生은 얼굴이 66.1%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입고 있는 옷으로 20.2%인데 비해 男學生들은 얼굴이 73.3%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머리스타일이 11.2%로서 男學生은 상태를 볼 때 주로 신체의 머리부분에 머물러 있으므로 女學生보다 衣服의 美的인 面에 關心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女學生은 늘 함께 生活하면서 서로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服飾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설 2는 대체로 긍정되었다.

3) 假說 3 : 女高生들의 衣服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學年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女高生들의 衣服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을 學年에 따라 t-test로 分析한 結果는 <表 4>와 같다. 調査對象 全體의으로 보면 學年에 따라 貞淑性은 $p<.01$ 의 수준에서 1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流行性, 審美性은 有意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男女學生別로 分析한 結果 男學生은 학년에 따라 모든 變因에서 有意差가 없는데 비해, 女學生은 貞淑性에서 $p<.01$ 수준에서 1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全體學年의 學年別差異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調査對象자들의 學年差가 1年差異로 年齡의으로 볼 때 거의 동년배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표 4〉 學年別 服飾行動의 點數 差異

평균, 別 성, 別	복식행동 표준편차		정숙성		유행성		심미성	
	M	S.D	M	S.D	M	S.D	M	S.D
1 학년 N=421	19.45	3.45	14.50	3.11	19.75	2.60		
2 학년 N=425	18.82	3.16	14.86	2.89	19.50	2.73		
t-value	2.94***		-1.72		1.35			

(남학생)

평균, 別 성, 別	복식행동 표준편차		정숙성		유행성		심미성	
	M	S.D	M	S.D	M	S.D	M	S.D
1 학년 N=213	18.95	3.66	14.41	3.28	19.68	2.87		
2 학년 N=217	18.47	3.41	14.92	2.96	19.27	2.73		
t-value	1.41		-1.69		1.49			

(여학생)

평균, 別 성, 別	복식행동 표준편차		정숙성		유행성		심미성	
	M	S.D	M	S.D	M	S.D	M	S.D
1 학년 N=206	20.24	3.13	14.59	2.92	19.82	2.28		
2 학년 N=210	19.18	2.84	14.79	2.82	19.74	2.71		
t-value	2.94**		-.69		.34			

*p<.05, **p<.01, ***p<.001

료된다. 또한 女高生들의 服飾行動 變因중 貞淑性에 대한 反應이 低學年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国内 先行研究에서 최혜선³⁸⁾, 김영인³⁹⁾, 이유순⁴⁰⁾의 研究結果와 一致된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4) 假說 4 :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反應은 異性에 대한 關心度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있을 것이다.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이 그들의 異性에 대한 關心에 따라 어떠한 差異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關心度別 各變因의 平均値와 그 差의 有意性을 F-test와 Duncan의 多重範圍檢證으로 分析한 結果는 <表 5>와 같다.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男·女學生과 全體學生모두 貞淑性, 流行性, 審美性에서

〈표 5〉 異性에 대한 關心과 服飾行動 點數의 差異 (전체)

평균, 이성에 관한 관심 복식행동 표준편차	정숙성		유행성		심미성	
	M	S.D	M	S.D	M	S.D
전혀 관심이 없다 N=68	19.65 A	3.22	13.68 A	3.18	18.78 A	2.92
관심이 조금 있다 N=435	19.61 A	3.11	14.40 A	2.87	19.32 A	2.62
친구로 꼭 사귀고 싶다 N=231	18.79 B	3.36	15.04 B	3.04	20.17 B	2.66
현재 친구로 사귀 고 있다 N=112	17.81 C	3.68	15.62 B	3.03	20.15 B	2.39
F-value	10.62***		8.72***		8.96***	

(남자)

평균, 이성에 관한 관심 복식행동 표준편차	정숙성		유행성		심미성	
	M	S.D	M	S.D	M	S.D
전혀 관심이 없다 N=45	18.83 A	3.98	13.87 A	2.93	18.13 A	3.66
관심이 조금 있다 N=250	19.23 A	3.28	14.36 A	4.03	19.09 A	2.77
친구로 꼭 사귀고 싶다 N=75	18.52 A	3.45	14.87 A	3.21	19.86 B	2.81
현재 친구로 사귀 고 있다 N=46	17.65 B	4.05	15.33 B	3.17	20.09 B	2.26
F-value	3.50**		2.35*		5.11***	

(여자)

평균, 이성에 관한 관심 복식행동 표준편차	정숙성		유행성		심미성	
	M	S.D	M	S.D	M	S.D
전혀 관심이 없다 N=45	20.07 A	2.70	13.58 A	3.33	19.11 A	2.43
관심이 조금 있다 N=250	19.90 A	2.95	14.44 A	2.74	19.51 A	2.49
친구로 꼭 사귀고 싶다 N=75	19.35 A	3.11	15.39 B	2.64	20.80 B	2.22
현재 친구로 사귀 고 있다 N=46	18.04 B	3.11	16.02 B	2.78	20.24 B	2.60
F-value	5.59***		8.06***		7.02***	

*p<.05, **p<.01, ***p<.001 문자는 Duncan

높은 有意差를 나타냈다. 즉 全體學生의 貞淑性 反應 點數는 異性에 대하여 '전혀 關心없다'고 應答한 學生 들이 가장 높았고 '현재 친구로 사귀고 있다'고 應答 한 學生들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流行性에서는 '전 혀 관심이 없다'가 가장 낮고 '현재 친구로 사귀고 있 다'가 가장 높았으며 審美性은 '전혀 관심이 없다'와 '조금 관심이 있다'고 應答한 集團이 낮고 '친구로 꼭 사귀고 싶다'와 '친구로 사귀고 있다'고 應答한 集團 이 높았다. 이를 다시 男女別로 分析한 결과 男學生 은 審美性에서 p<.001수준으로 貞淑性은 p<.01수 준에서, 流行性은 p<.05수준에서 有意한 차를 나타 냈고 女學生은 貞淑性, 流行性, 審美性에서 p<.001 의 높은 수준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또한 Duncan의 多重範圍檢證 結果는 <表 5>에서 文字로 나타내었다. 異性에 對한 關心은 女高生の 服飾行動 에 대한 反應變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貞淑性 變因에 대한 反應은 全體 및 男女모두 異性에 대 한 關心이 없을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異性에 대하여 積極적인 學生일수록 신체노출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流行性, 審美性 모두 異性에 대한 關心이 積極的일수록 높게 나타난 것은 異性에 대하여 關心을 갖고 있는 學生들이 외모 에 대해서도 關心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4는 모두 긍정되었다.

B. 研究問題 II

研究問題 I의 결과를 토대로 服飾行動을 從屬變因 으로 하고 異性에 對한 關心度, 물리적 환경수준, 성 별 및 학년을 獨立變因으로 하여 從屬變因에 대한 獨立變因의 영향과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重回歸分析을 하였다.

貞淑性에 대한 獨立變因의 영향력을 回歸分析한 結果는 <表 6>과 같다. 表 6의 결과를 토대로 女高生들 의 服飾行動에 대한 反應중 貞淑性에 대한 獨立變因 의 영향은 다른 變因을 전부 통제했을 때 첫째, 異性 에 대한 關心이 貞淑性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관심도 가 한단위 증가함에 따라 貞淑性 점수는 0.647의 감 소를 가져온다. 둘째, 물리적 환경수준이 貞淑性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수준이 한단위 증가함에 따라 0.144의 감소를 가져온다. 셋째, 성별이 貞淑性에 주 는 직접적 영향은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학생

〈표 6〉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貞淑性 反應을 설명해 주는 回歸係數

독립변인	회귀계수 t-value	비표준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value
이성에 대한 관심도		-.647	-.160	.136	-4.724***
물리적 환경수준		-.144	-.144	.033	-4.299***
성별 Dummy		.819	.123	.226	3.617***
학년 Dummy		-.660	-.099	.220	-2.992**
constant		25.513***			
R ²		.078			
F-value		14.243***			

*p<.05 **p<.01 ***p<.001

〈표 7〉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流行性 反應을 설명해 주는 回歸係數

독립변인	회귀계수 t-value	비표준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value
이성에 대한 관심도		.656	.179	.125	5.238***
물리적 환경수준		.122	-.135	.030	3.974***
성별 Dummy		.134	.022	.206	.647
학년 Dummy		.154	.091	.201	1.757
constant		12.315***			
R ²		.055			
F-value		9.739***			

*p<.05 **p<.01 ***p<.001

의 貞淑性 점수는 0.819였다. 네째, 학년이 貞淑性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학년의 정숙성 점수는 0.660였다.

貞淑性에 대한 獨立變因의 상대적 重要性을 추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異性에 대한 關心度, 물리적 환경수준, 성별, 학년순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정계수 R²는 0.078로서 貞淑性은 이성에 대한 관심도, 물리적 환경수준, 성별, 학년에 의해 7.8%가 설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貞淑性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성에 대한 관심도, 물리적 환경수준, 성별, 학년변인으로 모두 정숙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정숙성 반응의 예측변인은 이성에 대한 관심도이었다.

流行性에 대한 獨立變因들의 영향력을 回歸分析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의 결과를 토대로 流行性에 대한 獨立變因의 영향은 다른 變因을 전부 통제했을 때 첫째, 異性에 대한 關心度가 流行性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關心度가 한단위 증가함에 따라 流行性점수는 0.656의 증가를 보인다. 둘째, 물리적 환경수준이 流行性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수준이 한단위 증가함에 따라 流行性점수 0.122씩 증가를 가져오며 기타 다른 獨立變因은 통계적으로 有意度가 없어 流行性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流行性에 대한 獨立變因의 상대적 重要性을 추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異性에 대한 關心度 물리적 환경수준, 학년, 성별순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고 학년, 성별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결정계수는 0.055로서 유행성은 4개 독립변인에 의해 약 5.5%가 설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유행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성에 대한 관심도, 물리적 환경수준은 유행성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審美性에 對한 獨立變因의 영향을 회귀分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表 8의 결과를 토대로 審美性에 대한 獨立變因의 영향은 다른 變因을 전부 통제했을 때 첫째, 異性에 對한 關心度가 審美性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關心度가 한단위 증가함에 따라 審美的점수 0.574의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물리적 환경수준이 심미성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수준이 한단위 증가함에 따라 심미성 점수 0.086의 증가를 가져온다. 셋째, 성별의 심미성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女學生이 0.421의 증가를 보이며 학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없어 심미성에 주는 직접적 영향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심미성에 대한 獨立變因의 상대적 重要性을 추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異性에 대한 關心度, 물리적 환경수준 성별, 학년순으로 결정계수 0.048로 4.8%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심미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성에 대한 관심도, 물리적 환경수준, 성별의 순으로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審美性 反應을 설명해 주는 回歸係數

회귀계수 독립변인	t-value	비표준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value
이성에 대한 관심도		.574	.177	.111	5.145***
물리적 환경수준		.086	.107	.027	3.143***
성별 Dummy		.421	.079	.184	2.281*
학년 Dummy		-.242	-.045	.179	1.347
constant		22.066***			
R ²		.048			
F-value		8.424***			

*p < .05 **p < .01 ***p < .001

본 研究에서 사용한 4개의 독립변인들이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男女高生들의 反應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성에 대한 관심도, 물리적환경수준은 3개 종속변인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중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각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각 종속변인 모두가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고 그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수준인데 그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변인 이외에 가치관, 자아개념, 성격, 흥미등 복식행동과 관련있는 심리적인 변인을 추가하면 좀 더 정확하게 여고생들의 복식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도도 높여줄 것이다.

VI. 結 論

本 研究에서 제시된 研究問題 및 假說을 統計的으로 檢證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었다.

1.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물리적 환경수준, 성별, 학년, 異性에 대한 關心도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① 물리적 환경수준과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反應은 貞淑性은 男女모두 물리적 환경수준이 높

을수록 낮은 反應을 보였고 流行性인 물리적 환경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反應을 보였는데 審美性은 女學生만 물리적 환경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② 性別에 따른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女學生이 男學生에 비해 貞淑性, 審美性에서 높은 反應을 보였고 流行性에서는 男女學生間 有意한 차이가 없었다.

③ 學年에 따른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反應은 女學生은 貞淑性에서 2학년 보다 1학년이 높고 男學生은 學年間에 差異가 없었다.

④ 異性에 대한 關心도에 따른 反應은 異性에 대하여 적극적일수록 貞淑性은 낮았고 流行性, 審美性은 높았다.

2. 女高生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에서 服飾行動 變因에 대한 獨立變因들의 설명가능한 범위는

① 貞淑性에 대하여는 異性에 대한 關心度, 물리적 환경수준, 性別, 學年의 순으로 7.8%가 설명되고 ② 流行性에 대하여는 異性에 대한 關心度, 물리적 환경수준이 5.4%를 ③ 審美性에 대하여는 異性에 대한 關心度, 물리적 환경수준, 性別순으로 4.8%가 설명되고 있다. 즉 모든 服飾行動 變因에 대해 獨立變因 가운데 異性에 대한 關心도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다음이 물리적 환경수준, 성별, 학년 순서였으나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引 用 文 獻

1.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pp. 161-164.
2. Glenn M. Blair and R. Stewart Jones, Psychology of Adolescence for Teacher, 金仁植 譯, 青年心理學 (서울; 培英社, 1979), p 11.
3. 정인석, 청년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75), p. 68.
4. Elizabeth B. Hurlock, Adolescent Development, (Tokyo; McGrow Hill Kogakusha, Ltd, 1973), p. 2.
5. 加藤陸勝, 靑少年의發達的 意義: 現代靑少年心理學講座, (東京; 金子書房, 1975), pp. 17-26.
6. 加藤陸勝, 上掲書, pp. 17-26.
7. Hurlock, 前掲書.

8. 장기숙, “高校生の 衣服行動과 創意性과의 關係”,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83, p. 55.
9. 홍찬희, “女高生の 自我概念과 衣服着用動機와의 相關關係”, 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3, p. 29.
10. 윤창숙, “靑少年의 衣服行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 弘益大學校 産業大學院, 1983, p. 57.
11. 최혜선, “衣服行動과 社會的 安定感—不安感과의 關係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논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1, pp 41-45.
12. 김영인, “女子中學校學生들의 衣服行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家政大學校 大學院, 1980, p. 61.
13. 권혜옥, “衣服自律化 이후 女子高等學校學生의 衣服行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3, p. 46.
14. 최혜선, 前揭書, p. 46.
15. M. Kefgen &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London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1976), p. 130.
16. 장문호, 服飾美學, (서울; 세운 문화사, 1977), p. 167.
17. 김영인, 前揭書, p. 61.
18. 김병미, “靑少年의 衣服行動에 관한 研究”, 大韓家政學會誌, 제13권 3호, 1975, pp. 29-45.
19. 진경숙, “女大生 衣裳形態에 대한 男子大學生의 關心에 관한 研究; 貞淑性, 審美性, 流行性, 奢侈性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80, p. 16.
20. M. Lapitsky, Clothing Values and their Reac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Doctori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ited by Ryan 1966, p. 102.
21. H.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3), p. 5.
22. F. Starr, Dress and Adornment, Cited by Ryan, 1966. p. 42.
23. E.B. Hurlock,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r, (Now York; Arno press), p. 177.
24. 장기숙, 前揭書.
25. 최혜선, 前揭書.
26. 정원식, 가정환경진단 검사(중고등학교용) 실시요강, 코리아 테스트링 센터, 1979, p. 11.
27. 정원식, 上揭書.
28. Anna M. Creekmore,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S.U.E.S.P. No. 783, 1971), p. 96-102.
29.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에 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1973, pp. 48-51.
30. 진경숙, 前揭書, p. 16.
31. 김재은, 통계적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1981), p. 139.
32. 김정호, “사회계층과 의복형태”—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의류학회지, 1978, p. 49.
33. 김경희,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pp. 51-53.
34. 이명희, “禮儀, 貞淑性과 審美性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衣服行動과 關聯된 心理的 變因研究”, 博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2, p. 26.
35. 임춘봉, “大學院의 自我概念과 衣服行爲와의 相關關係”,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1974, p. 33-40.
36. 최순희, “女性衣服形態에 대한 男女別 反應과 家族 價値視과의 相關關係”, 碩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1981, pp. 36-47.
37. 이유순, “教師들의 服飾行動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 研究”, 博士學位論文,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1986, pp. 28-30.
38. 최혜선, 前揭書, p. 47.
39. 김영인, 前揭書, pp. 39-48.
40. 이유순, 前揭書, pp. 25-28.